

쯔쯔가무시균 감염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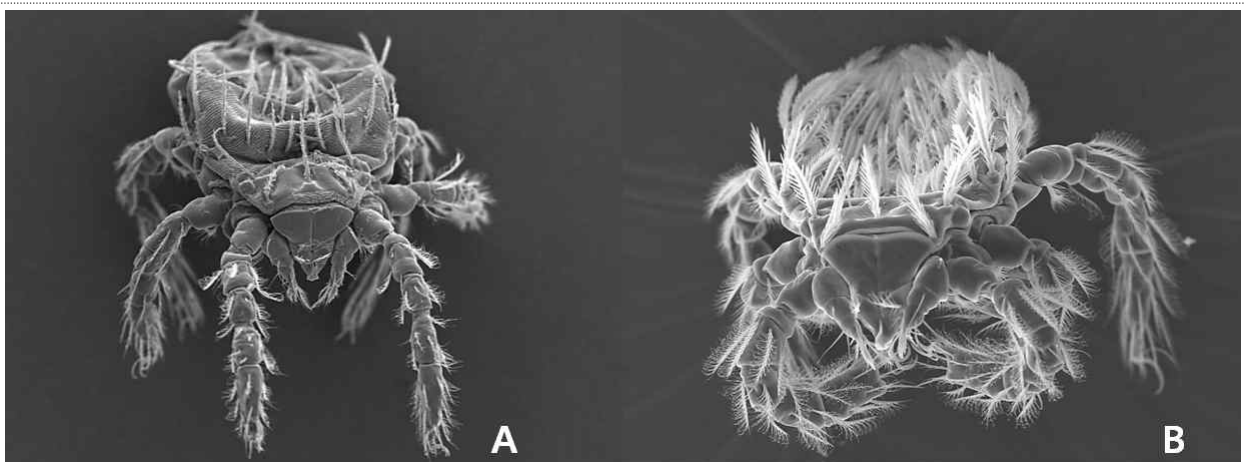
- 전국 20개 지점에서 쯔쯔가무시 매개곤충인 털진드기 발생을 매주 감시
- 8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(16주간) 쯔쯔가무시균(*Orientia tsutsugamushi*)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 주차별 감시정보를 대국민 제공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쯔쯔가무시증(Scrub Typhus)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(10월~11월)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을 8월 넷째주부터 전국 20개 지역*에서 동시 시작한다고 밝혔다.

* 질병관리청 지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센터(16개)를 주축으로,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및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시 수행

쯔쯔가무시증 감염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, 물린 자리에 가피(검은 딱지, eschar)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,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, 근육통, 반점상 발진, 림프절종대 등이 있다.

<쯔쯔가무시균 매개 주요 털진드기>



(A : 활순털진드기, B : 대잎털진드기)

「털진드기 발생감시 사업」은 국민에게 털진드기 발생 및 밀도변화 정보를 제공하며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,

사람들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(논, 밭, 수로, 초지)에서(붙임 1 참고) 털진드기 채집기(특허 제10-1555975)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매주 누리집*을 통해 제공한다.

* ‘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’ 등으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 (<http://www.npt.kdca.go.kr>)을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할 예정



감시사업에 활용되는 털진드기 채집기(왼쪽) 및 설치 사진(오른쪽)

국내에 찌찌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*으로 알려져 있으며, 2022년도 감시 결과, 주로 남부와 일부 북부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,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(붙임2 참고).

* 활순털진드기(*Leptotrombidium scutellare*), 대잎털진드기(*L. pallidum*), 수염털진드기(*L. palpalis*), 동양털진드기(*L. orientalis*), 반도털진드기(*L. zetum*), 사육털진드기(*Neotrombicula japonica*), 조선방망이털진드기 (*Euschoengastia koreaensis*), 들꿩털진드기(*Helenicula miyagawai*)

또한 털진드기 유충 발생은 초가을(9월 말~10월 초)에 증가하기 시작하였고, 늦가을(10월 말)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(붙임2 참고).

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“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, 찌찌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기”를 당부하며, “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,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”을 강조하였다.

또한, “찌찌가무시균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,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(가피)이 관찰되거나, 10일 이내 발열·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, 찌찌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”고 당부하였다.

<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>

○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

-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
-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* 갖추입기
 - * 밝은 색 긴소매 옷, 모자, 목수건, 양말, 장갑 등
-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
-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

○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

-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 사용하기
-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,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
-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
-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

○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

-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
-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(검은 딱지 등)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
-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

- <붙임> 1. 2023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
 2. 2022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 결과
 3.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관련 질의응답(Q&A)

담당 부서 <총괄>	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희일	(043-719-8560)
		담당자	연구관	주정원	(043-719-8521)
		담당자	공무직	노병언	(043-719-8579)
담당 부서	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	책임자	과 장	황경원	(043-719-71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홍	(043-719-7161)
		담당자	연구사	황지혜	(043-719-7167)

붙임 1

2023년 쫄쫄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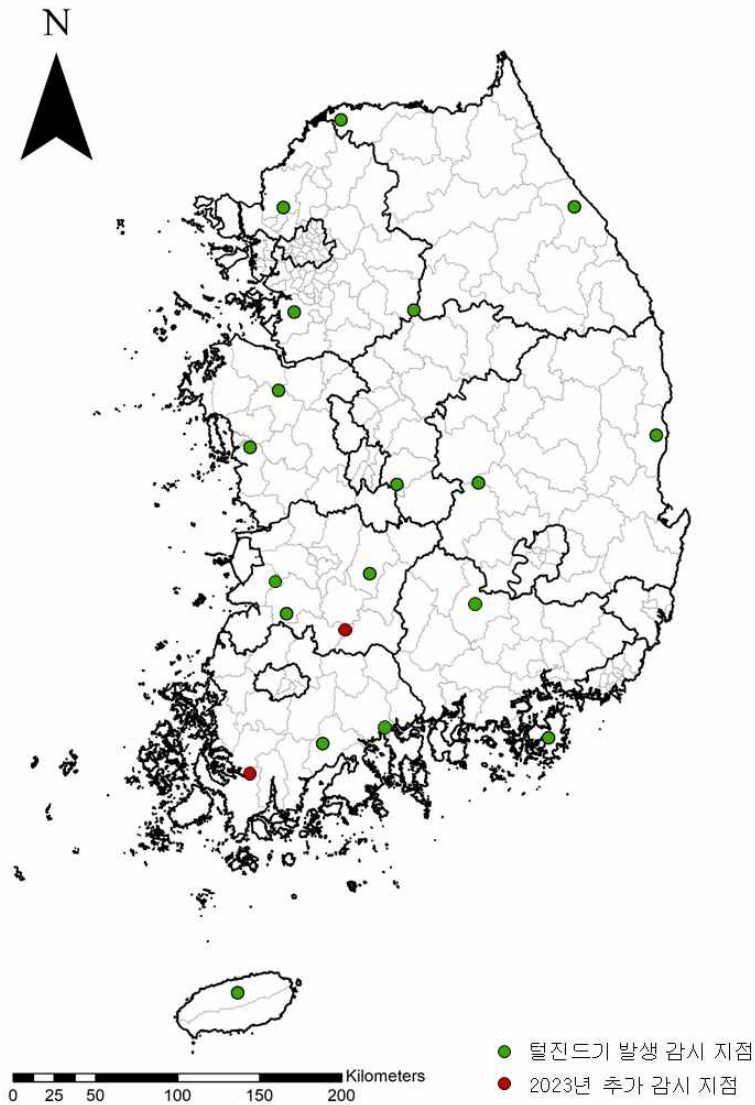
□ '23년도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

○ 전국 9개 도 20개 지역(4개 환경*)에서 매주 털진드기 발생 감시 수행

구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지역	여주시 파주시 화성시	강릉시 철원군	옥천군	보령시 예산군	부안군 진안군 순창군**	순천시 보성군 해남군**	김천시 영덕군	거제시 합천군	제주시

* 털진드기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발생 감시 수행 : 논, 밭, 수로, 초지

** 2023년부터 2개 지역을 추가하여 털진드기 발생 감시 확대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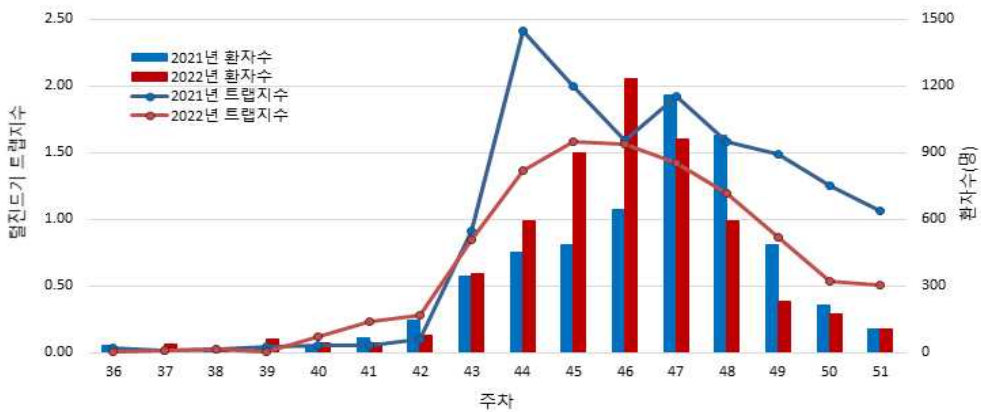


<2023년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>

□ 2022년 쫘쫘가무시군 매개 털진드기 주간 감시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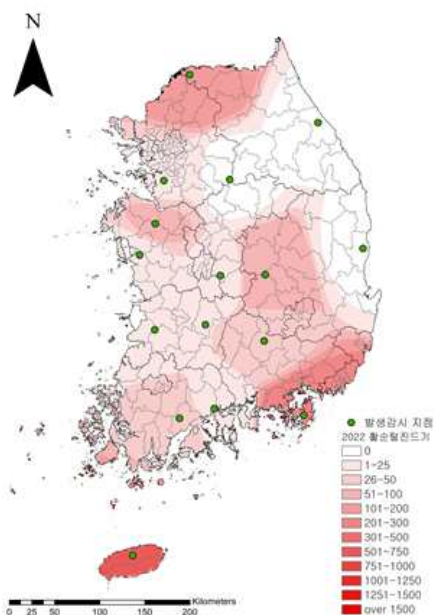
○ 털진드기의 주요 활동 시기(9~12월) 동안 털진드기 발생을 감시한 결과, 10월 중순(43주차)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11월 초(45주차)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

○ 털진드기 개체수와 환자수 증가는 잠복기(1~3주) 간격을 두고 비슷한 양상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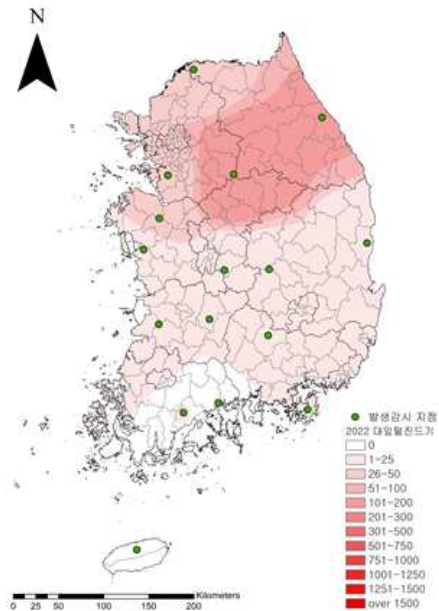


<주차별 털진드기 트랩지수*와 쫘쫘가무시군 환자수(2021~2022년)>

*트랩지수(Trap Index) = 트랩당 7일간 채집된 털진드기 개체수(개체수/트랩수)



<22년 활순털진드기 발생 분포>



<22년 대유탄진드기 발생 분포>

Q1. 쯔쯔가무시증의 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야외작업·활동 시 적정 작업복(긴팔·긴바지, 모자, 목수건, 토시, 장갑, 양말, 장화) 착용, 농경지 및 거주지 주변 풀숲 제거,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고 휴식 시 돛자리 사용, 야외작업·활동 후 작업복 세탁하기, 귀가 즉시 목욕·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Q2. 쯔쯔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?

- 쯔쯔가무시증은 보통 1~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, 두통, 발열, 오한, 구토, 발진, 근육통, 기침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.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쉽게 회복되지만,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Q3. 쯔쯔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나요?

-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. 환자는 연중 발생하지만, 여름철에 산란 된 털진드기알은 본격적으로 초가을에 부화하고,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숙주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을 한다. 이에 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활동하는 가을(9~11월)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.

Q4. 모든 털진드기가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나요?

-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총 59종의 털진드기가 있습니다. 이 중 현재까지 쯔쯔가무시균 매개종으로 확인된 것은 활순털진드기, 대잎털진드기, 수염털진드기, 동양털진드기, 반도털진드기, 사육털진드기, 조선방망이털진드기, 들꿩털진드기, 이렇게 8종입니다. 그 중에서도 활순털진드기, 대잎털진드기가 주요 매개종입니다.